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D-3

## 분위기 어수선… 여전히 ‘준비 중’

2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대회의 중심 도시인 밀라노는 대회 개막 닷새를 앞두고 여전히 ‘준비 중’인 분위기다.

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도착한 밀라노 말펜사 공항은 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개최지의 첫 관문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모든 관계자가 대회 기간 적용해 야 하는 AD 카드를 활성화하는 등 롤 데스크 찾기부터 난항이었다.

항공편에서 내려 올림픽 관계자용 라인에 들어서서 입국심사를 받고 짐을 찾기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으나 이후엔 관계자와 일반 여행객의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뒤섞인 가운데 등록 데스크로 향하는 길 또한 명확하게 안내돼 있지 않았다.

이곳저곳 물어본 끝에야 출구를 나선 뒤에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올림픽 관련 이정표나 안내판이 듬성듬성 세워진 데다 글자 크기도 ‘깨알 같다’고 할 만한 정도로 작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방을 주시하며 이동해도 방향을 잊기 쉽성이었다.

공항을 나와 차로 40분 암쪽으로 떨어진 밀라노 시내로 이동하는 길은 ‘축제 분위기’와 더욱더 동떨어

져 있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비롯해 여타 대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올림픽 전용 차선은 물론이고, 올림픽 경기장이나 시설에 대한 표지판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시내로 들어서면서 후원사 광고 등으로 올림픽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축제를 맞이하는 분위기라고 하기엔 부족했다.

2006 토리노 대회 이후 20년 만에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탈리아는 신규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며 밀라노와 400km 넘게 떨어진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해 경기장을 곳곳에 분산했다.

크게 나눈 개최 권역만 4곳으로, 준비가 덜 된 곳은 밀라노뿐만은 아닌 듯하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이날 “코르티나담페초의 여자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관중들을 실어 날라야 할 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경기에 맞춰 가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6일 오후 산지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기준으로 이번 대회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개막에 앞서 각종 일정이 시작되는 날은 4일로,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 장애인대표팀 어제 동계페럴림픽 결단식

### 5개 종목 출전… 종합순위 20위권 목표

이탈리아의 차가운 빙판과 설원을 뜨거운 투혼으로 녹일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별’들이 힘찬 출사표를 올렸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페럴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장애인 대표팀 선수단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결단식에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양오열 선수단장, 선수, 지도자, 후원사 관계자 등 총 150여 명

이 참석했다.

최희영 장관은 격려사에서 이제 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를 대독하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 노력의 결과가 설원과 빙판에서 활짝 꽂힐 거라 믿는다”며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완 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 이 자리에 선 과정 자체가 이미 끊임 성취이다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힘줘 말

했다. 한국은 현지시간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코르티나 일원에서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페럴림픽에 40여명(선수 1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들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으로 잡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의 현지 적응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현지에 훈련 캠프를 마련했으며, 선수단 본진은 오는 27일 결전지로 떠난다.

연합뉴스

이날 경기장은 개회식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 이 자리에 선 과정 자체가 이미 끊임 성취이다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힘줘 말

했다.

한국은 현지시간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코르티나 일원에서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페럴림픽에 40여명(선수 1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들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으로 잡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의 현지 적응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현지에 훈련 캠프를 마련했으며, 선수단 본진은 오는 27일 결전지로 떠난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열릴 코르티나담페초 시내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